



1. 새벽에 물주기, 2018. 면천에 유채, 193x259cm.
2. 얼굴들, 2019. 면천에 유채, 193x150cm.
3. 쥐 잡기, 2019. 면천에 유채, 130.3x162.2cm.
4. 앉기, 2019. 면천에 유채, 53x45cm.
5. 그림자, 2019. 면천에 유채, 193x150cm.
6. 달 잡기, 2019. 면천에 유채, 162.2x130.3cm.
7. 생각하며 걷기, 2019. 면천에 유채, 130.3x162.2cm.

식물 극장

ONE AND J.+1

최모민

2019.05.09-06.01

2019년 5월 9일부터 6월 1일까지 원앤제이 플러스원에서 진행되는 《식물 극장》을 통해 최모민은 식물이 있는 풍경을 배경으로 하는 7점의 회화 작품을 선보인다.

《식물 극장》은 작품 속 인물과 배경들과 무관한 또는 그것을 지렛대 삼아 작가가 본 일상적 풍경에 숨은 미적 생명력을 끌어내는 또 다른 풍경이다. 최모민이 이번 전시를 위해 작업의 소재로 삼은 것은 무미건조한 일상적 풍경, 제멋대로 무성히 자란 식물로 가득한 풍경이다. 작품들의 주된 무대가 된 '식물'은 때때로 화면 속 인물보다 강한 존재감을 가진다. 얼굴과 행위가 모호하고 흐릿한 인물이 무대 장치들 가운데 하나처럼 정적인 상태로 머무르며 식물과 동화되고, 이와 대조적으로 식물은 선연하고 무성한 모습을 드러내며 회화의 전경으로 부각되기도 한다. 그림 속 인물들은 정지된 자세가 아니라 하나의 연극을 이루는 여러 장면들이 한 면에 그려진 듯, 어디까지 실화이며 어디까지 허구인지 알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행위를 하고 있다. 이는 회화를 통해 하나의 '이야기'를 만들며 허구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작가의 태도를 보여주며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위화감을 담고 있다.

<그림자>, <얼굴들>, <쥐 잡기>, <달 잡기>, <생각하며 걷기>, <새벽 물주기>, <앉기>는 공통적으로 풍경을 배경으로 한다. 풍경은 발견을 위한 무대이며, 작업에 대상이 되는 사물을 발견하기 위한 최초의 단서이다. 풍경을 관념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풍경 그 자체의 사물성을 보여주려고 했다. 풍경 속 사물들에서 힌트를 얻은 후, 인물과 사물을 교차해서 인물의 행위가 풍경에 스며들거나 어긋나면서 생기는 이야기를 1인극 그림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다.

- '작가노트 중'

최모민 (Momin Choi)

풍경을 탐구하는 작업에 천착해왔으며, 그가 그리는 풍경은 단지 어떤 사건의 배경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다. 이는 개인의 실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환경이기도 하고, 사회적 징후를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하며, 때로는 모든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익명의 보편적 공간이기도 하다.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전문사 졸업 후 은평문화재단 등에서 진행한 개인전과 서울예술재단, 합정지구, 디스위켄드룸 등에서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2019 금호창작스튜디오 14기 입주작가로 활동 중이다.